

지원한 대학에서 '가정 부담금을 높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얼리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합격 여부와 재정보조/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통지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바로 가정 부담금(EFC)을 높이면 지원 서류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이다.

가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지 묻는 통보(메일)은 합격 통보도, 불합격 통보도 또, 디피 통보도 아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합격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협상 편지이다. 그런데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이런 경우를 당한 실제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A 학생은 그가 지원한 대학 가운데 한 대학으로부터 가정 부담금을 2만 8,000달러로 인상하면 지원 서류를 재검토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지원서류를 재검토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합격시켜 주겠다는 말이다. B 학생도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

이 대학은 레터를 통해 "If your financial situation changes or you identify additional sources of funds, we would be pleased to reconsider your application. Please submit an updated Interan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 with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s as soon as possible." 라고 알렸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부모나 학생들은 지원한 대학에 탈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지원 학생이 불합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부담금을 협상하자는 이야기다. 즉, 위 학생들의 경우 가정 부담금을 2만 8,000달러로 올리고 관련 서류를 보완하면 재심사해 합격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이 요청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케이스가 있다.

- 1) 부모가 요구한 만큼 재정보조를 해 준다.
- 2) 일방적으로 불합격 시킨다.
- 3) 부모가 요구한 금액보다 재정보조를 더 해 준다.
- 4) 부모가 요구한 금액보다 재정보조를 더 적게 해 준다.
- 5) 학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가정보조금을 올리라고 통보한다.

앞서 소개한 학생들은 5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가정부담금을 올리겠다고 답신하면 곧바로 합격 통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사진=shutterstock

얼리 합격자 발표 후 장학금 레터를 받지 못했다면



대학 얼리 지원의 장점은 합격 통지를 빨리 받아 본다는 것이다. 벌써 합격자 발표들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재정보조/장학금 통지(Award Letter)도 함께 오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진학을 해야 하는 Early Decision인 경우는 합격 발표와 동시에 학자금 내역을 알려준다. 얼리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전후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12월 24일경에 나온다.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합격자 발표 후 2-3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 통보도 함께해 준다.

반면 합격 후에도 다른 학교의 결과를 보고 학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얼리 액션(Early Action)인 경우는 합격 여부를 발표한 후 학자금 내역을 즉시 알려주지 않고 추후에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얼리 액션의 등록 통보는 내년 5월 1일까지다. 따라서 장학금 통보가 늦는 경우가 많다.

얼리 디시전인 경우에 학자금 지원 내역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누락된 서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장학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보통 메일로 빠진 서류를 알려주지만 처리할 일이 많으면 누락될 수도 있다. 어떤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서류 제출 후 학교에 연락해서 서류가 제출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학자금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서류만 보내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정시모집의 학생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늦은 시점에 학자금 내역을 받게 되어 적정하지 않은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했다면 입학원서의 제출과 함께 학자금 서류 및 추가 요청 서류들을 동시에 준비해서 원서 제출과 함께 즉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합격을 해도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재정 보조/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합격 통보와 함께 재정보조 통보가 안 왔으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